



히타이트 텔리피누 칙령(Telipinu Edict)과 고대 이스라엘의 왕위계승

이 종근 | 삼육대

1. 서론

히타이트(Hittites)는 아나톨리아(Anatolia) 지역의 고대 백성들을 말한다. 이 말은 히타(Hittit, 인종)를 히브리식으로 부르는데서 나왔고, 지리적 명칭인 핫티(Hatti, 현 앙카라[Ankara]에서 약 100마일 떨어진 핫투사(Hattusa/ 보가즈코이[Bogazköy])에서 유래했다. 핫타(Hatta) 땅의 원주민들을 핫티인(Hattians/ Hattic)으로 부르고, 후에 이 지역을 점령한 인도-유럽계인들을 히타이트(Hittites)로 구분한다. 히타이트 역사는 대략 고왕국(Old Kingdom, c. 1750-1500 BC), 신왕국(c. 1500-1180 BC)로 구분된다.¹⁾ 성서에도 히타이트(헷) 민족은 여러 시대에 걸쳐 널

1) 시대는 중왕국(Middle Kingdom, c. 1500-1430), 및 신왕국(New Kingdom, c. 1430-1180 BC)으로 달리 구분되기도 한다. Hans G. Guterbock/ S. David Sperling (2nd ed.), "Hittites," *Encyclopaedia Judaica*, Fred Skolnik(eds), 2nd ed. (Detroit: Macmillan Reference, 2007), 5:290-291; C. W. Ceram, *The Secret of the Hittites: the Discovery of an Ancient Empire* (London: Phoenix Press, 2001), 3-86; Ekrem Akurgal, *The Hattian and Hittite Civilizations* (Izmir: Turkey, 2001); Philo H. J. Houwink Ten Gate, "Hittite history", *ABD*, III:219-225; 이종근,

리 언급된다.²⁾

본 연구는 왕위계승에 관한 고대 히타이트의 텔리피누 칙령의 배경과 정신을 살펴보고 고대 이스라엘의 왕위계승의 이슈를 비교 연구한다.³⁾

2. 텔리피누 칙령

1) 칙령의 배경

이 칙령은 히타이트의 오랜 왕위계승과 관련된 유혈 사태를 막고 왕가(royal family)의 지배권을 세우려고 만든 법이다. 왕가의 연합과 안정이 해외에 이르기까지 성공을 가져왔고 내분은 재앙을 초래했음을 과거의 역사를 제시함으로 보

“히타이트 법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집 (2010, 1), 27-28; 김영진, 「성서와 민족: 이스라엘 역사 연구 2」 (울림하타너, 2003), 241-244.

- 2) 족장사에서는 원주민 헷티(Hatti) 언어를 쓰던 헷 족속들로 나온다(창 23:7, 10; 25:9-10; 49:30, 32). 모세의 기록에 나오는 히타이트는 제국 시대의 백성이며(신 7:1), 다윗의 군대(삼하 11:3), 솔로몬의 첩(왕상 11:1), 솔로몬과 교역한 사람들(대하 1:17),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도운 헷 사람(왕하 7:6) 등은 북부 시리아의 도시 국가의 히타이트 족으로 보인다. 기원전 1700여년에서 1200여년까지 약 500여년의 역사를 장식한 히타이트 제국의 역사는 1900년대 초반 점토판이 발굴되면서, 그 신비가 3000여년 만에 밝혀지게 되었다. C. W. Ceram, *The Secret of the Hittites: the Discovery of an Ancient Empire* (London: Phoenix Press, 2001), 3-86; Harry A. Hoffner, *Hittite Myth*, SBL Writings from the Ancient World, vol. 2, ed. Gary M. Beckman (Atlanta: Scholars Press, 1990), 2-5; S. 슈반텐스, 「고대 근동의 역사」 (이종근 옮김), (서울: 삼영출판사, 2001), 75-78.
- 3) 본 논문의 선행연구로 텔리피누 칙령은 그 자체만으로 고대근동학에서 잘 정립되어 있다. 텔리피누 칙령과 고대 이스라엘 왕위계승의 비교연구는 본 연구의 독창성이라 사료된다. 텔리피누 칙령과 유사한 문서가 신 앗시리아의 에살하돈(Esarhaddon, c. 681-669 BC) 왕에 의해 그의 아들 앗수르바니팔(c. 668-627 BC) 왕자가 왕위에 등극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약 형식으로 선포한 『에살하돈의 계승조약(ND 4336=SAA II 6)』이 유명하다. 그 칙령에 따라 에살하돈이 이집트 원정 중에 죽었지만, 왕권이 앗수르바니팔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텔리피누 칙령과 에살하돈의 왕위계승 조약에 대한 비교연구는 현재까지 미지로 남아 있다. 반면 고대 이스라엘의 왕위계승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되어 있다. 임태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5-37; 이희학,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정중호, 「이스라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허셜 생크스 엮음, 「고대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로마인의 성전 파괴까지」, 김유기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에드윈 R. 딜레,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한정건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등; 김영진, 「조약과 언약: 고대근동의 국제조약과 구약성서의 언약 연구」 (서울: 한들출판사, 2005), 103-126; John van Seters, “Historiography of the Ancient Near East”, in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Jack M. Sasson(eds) (NY: Charles Scribner's Sons, 1995), IV: 2240-2241; Gary Beckman, “Royal ideology and state administration in Hittite Anatolia”,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I:535;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r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Zafira Ben-Barak, “Succession to the throne in Israel and in Assyria”, *Lovaniansia periodica* 17 (1986), 85-100; Bernard M. Levinson, “Esarhaddon's succession treaty as the source for the canon formula in Deuteronomy 13:1”,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30 no 3 (J-S 2010), 337-347.

여주고 있다.⁴⁾ 이 칙령은 왕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일련의 왕위계승의 규정들을 규정하는데 그 형태는 양식과 성격에 있어 이전의 『하투실리 1세(Hattusili I)의 정치적 증언(Political Testament)』⁵⁾을 따르고, 또한 텔리피누 이후의 『하투실리 3세(Hattusili III)의 사죄서(Apology)』가 이를 따른다.⁶⁾ 고대 히타이트의 라바르나(Labarna) 가문과 하투실리 가문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유혈극을 벌였다. 나라가 작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돌아와서는 그곳으로 자녀들을 보내어 그 나라의 통치자로 세웠다. 각 가문에서 일곱 나라들을 다스리고, 초기의 두 가문이 히타이트의 영토를 확장했다.⁷⁾

하투실리 1세(c. 1586–1556 BC, short chronology)부터 텔리피누 왕 즉위까지 60여년의 세월 동안 연이은 살인으로 왕위를 찬탈극이 계속되었다. 하투실리를 이어 무르실리 1세(Mursilis I, c. 1556–1526 BC)는 시리아의 알랩포(할렙)를 정복하고 함무라비 왕조의 바벨론을 정복했지만, 정복 기간의 권력 공백을 이용하여 한틸리(Hantili I)와 그의 사위 지단타(Zidanta)가 무르실리를 암살하고 한틸리가 왕이 되었다. 한틸리 또한 병석에 있을 때 지단타가 왕위 서열의 아들 카쉬세나(Kasheni/ Pisheni)를 비롯하여 왕비 및 시종 등 모두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다. 왕실이 무법천지가 되고 지단타 자신도 자신의 아들 암무나(Ammuna)에게 살해되었다. 계속되는 가문과 속국 및 동맹국들이 분리되어 왕국은 몰락을 길에 들어섰다.

암무나는 텃티야(Tittiya)와 한리리(Hantili)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고 살해당한 지단타의 매제인 근위대장 주루(Zure)의 장남은 훗지야(Huzziyas)였다. 주루가 텃티야와 한틸리 일가를 죽이고 장남 훗지야가 왕이 되었다. 훗지야가 텔리피누를 제거하려하자 이 거사가 사전에 발각되어 텔리피누가 훗지야를 퇴위시키고

4) van Seters, "Historiography of the Ancient Near East", IV: 2240–2241; .

5) John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90), 125–127.

6) 텔리피누 칙령이 이 두 문서들과 다른 점은 이 칙령은 여러 세대에 걸친 과거 역사를 반영하며 자료들을 역대기적 순서로 나열했다는 것이며, 헌법의 역사적 서언(historical preamble)에 따른 몇 가지의 근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deity)에 대한 호소 없이 객관적이며 히타이트 민족에게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다. van Seters, "Historiography of the Ancient Near East", 2441.

7) 라바르나와 하투실리 신원에 관한 참고: C. W. 세람, 「발굴과 해독: 고대 최강대국 히타이트, 100년 동안의 발견 이야기」 (오홍식 옮김), (서울: 푸른역사, 2000), 154.

왕이 되었다. 그러나 텔리피누는 훗지야(Huzziya) 가문을 살해하지 않고, 그와 공모자들을 심판할 귀족회의인 판구(panku/ tuliya)를 소집했다. 판구에서 사형이 결정되었지만 텔리피누는 이들에게 가축과 농지를 주어 유배시켰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실의 음모, 권력욕과 복수욕에 의한 유혈극을 종식시키고 왕위계승법을 세워 나라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⁸⁾

2) 텔리피누 칙령

히타이트 신화에서 식물의 신으로 재난을 주관하고 자연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신명(神名)⁹⁾을 지닌 텔리피누(Telipinu, c. 1525–1500 BC)는 고대 히타이트의 왕으로서 살인과 왕위 찬탈의 악순환을 끝내고 히타이트 역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텔리피누 칙령을 선포했다. 이 칙령은 왕위계승의 순서를 엄격히 정한 것이다. 그 왕위계승 서열을 다음과 같다.

1. 왕위 서열 1위(정실부인의 아들) 왕자만이 왕이 되어야 한다.
2. 서열 1위의 왕자가 없으면 서열 2위(후궁에게 난 아들) 아들이 왕이 된다.
3. 왕에게 아들이 없을 시는 정실부인의 딸의 남편인 사위가 왕이 된다.

같은 서열의 왕자들 중 장남만이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왕이 생존할 시 그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 이상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거듭되는 가족의 반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이 칙령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낮은 서열의 왕자들이 앞선 경쟁자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그 외의 신분이 낮은 여자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8) 이희철, 「히타이트: 점토판 속으로 사라졌던 인류의 역사」 (서울: 리수, 2004), 86–88; 비르기트 브란다우, 하르트무트 쉬케르트, 「히타이트」 (장해경 옮김), (서울: 중앙 M & B, 2002), 97–110. 칙령 전문 참조: <http://www.hittites.info/translations.aspx?text=translations/historical%2FTelipinu-Proclamation.html>.

9) 우주의 어떤 영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텔리피누 신이 노하여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인간과 신적 화해 의식이 필요했다. Gary Beckman, "The Wrath of Telipinu (1.57)", in *The Context of Scripture: Monumental Inscriptions from the Bible*, William W. Hallo, & K. Lawson Younger(eds) (Leiden: Brill, 2000), 1:151; Manfred Lurker, *The Routledge Dictionary of Gods and Goddesses, Devils and Demons* (NY: Routledge, 1987), 181; Trevor R. Bryce, "The role of Telipinu, the priest, in the Hittite kingdom", *Hethitica* 11 (1992), 5–18.

은 왕이 될 수 없었다.

이 왕위계승법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국가의 권력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확정한 면에서 의미가 있다.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오늘날의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사법적 기구인 판구를 통해 이 규칙을 범한 자들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왕 또는 판구의 위원이라도 살인을 하거나 합법적 왕위계승자를 제거하고 왕권을 쟁취했다면 판구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¹⁰⁾ 또한 이 칙령은 유혈극은 복수의 악순환을 가져오기에 연좌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범 죄자는 당사자만이 처벌을 받았을 뿐, 그 이외의 가족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 칙령은 히타이트 제국의 종말까지 시행되었고, 히타이트 법 역사에 큰 기여를 했다.¹¹⁾ 텔리피누 칙령은 고대근동에서 국가 안위의 기초인 왕위승계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 칙령에 어긋나는 왕위계승이나 갈등은 신 앗시리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말기에 유혈극뿐만 아니라 제국의 패망을 가져오는데 일조했다.¹²⁾ 이 원칙은 고대 시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영국 왕실의 유사한 왕위 서열처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¹³⁾

10) Beckman, "Royal Ideology and State Administration in Hittite Anatolia",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I:535.

11) 윌클, I:534-535; Amelie Kuhrt, *The Ancient Near East* (London, NY: Routledge, 1995), I:244-250.

12) 앗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아수르바니팔도 바빌론의 분봉왕이자 그의 형인 샤마쉬-우킨(Shamash-shum-ukin, c. 668-648 BC)과의 내분으로 제국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제국 해체의 내리막길을 향하게 했다. 또한 페르시아의 말기에 이르러서도 다리우스 2세(Darius II, c. 423-404 BC)가 장자인 아탁사스다 2세(Artaxerxes II/ Arses, c. 405-358 BC)와 동생 소(小) 고레스(Cyrus)간의 왕위계승을 매듭짓지 않고 서거함으로 형제간의 세력 다툼으로 제국이 뿌리채 흔들렸다. 계속되는 왕위계승의 유혈극과 혼란 중 그리스의 알렉산더(336-323 BC)에게 제국이 넘어가고 말았다.Kuhrt, *Ancient Near East*, II:587-589,673-675; 마르크 반 드 미에를, 「고대 근동 역사」(김구원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386-389,424-425.

13) 영국 왕실의 왕위계승 서열은 다음과 같다.

1.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가 성공회나 개신교 신자여야 한다.
2. 먼저 태어날수록 순위가 높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3. 여자 직계가 남자 방계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원칙의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영국의 왕위계승법에서 아들이 우선 왕위를 승계하는 남녀차별을 없애려는 시도가 보도되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 (2008.04.21 11:39); *Economist*, 10/15/2011, vol. 400, Issue 8755, 66, http://ko.wikipedia.org/wiki/%EC%98%81%EA%B5%AD%EC%9D%98_%EC%99_%95%EC%9C%84_%EA%B3%84%EC%8A%B9_%EC%88%9C%EC%9C%84.

3. 이스라엘의 왕위계승

1) 다윗 이전

(1) 아비멜렉

통일 이스라엘의 왕조시대는 대략 기원전 1050년경에서 586년까지 약 460여년 지속되었다. 그 이전의 사사시대에는 12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들 중 불법 수단으로 통치권을 장악한 한 사례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이다. 기드온이 세겜 출신의 첩이자 몸종에게서 낳은 아들로 이복형제 70명과는 다른 세겜이라는 지역감정과 비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인종감정을 강조하며 경쟁자들에게는 적대감을 갖도록 했다. 부왕의 사후 세겜의 외가 친척을 사주하고 은 70개로 불량배를 사 그들의 지지로 70명의 형제들을 살해했다. 거짓 정치선전, 불법 정치자금, 깡패동원, 및 정적암살 등의 불의한 수단방법으로 왕권을 쟁취했다.¹⁴⁾ 그러나 백성 전체의 동의나 학살로 인한 통치의 도덕성이 결여되고 세겜 등 일부 지역 이외에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통치권을 확대하고자 다른 도시로 거주를 옮긴 것 때문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자신을 반대했던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를 대항했던 데베스 망대를 치려다 한 여인이 던진 돌이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삿 8:31; 9:1-57).¹⁵⁾ 후일 건국될 텔리피누 원칙에 반(反)하는 왕권의 한 모델이다.

(2) 사울

사울(c. 1050-1011 BC)은 통일왕국의 첫 왕이다.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유지 출신으로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당시 지파공동체에서 외침에 대항할 왕정을 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반왕정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의해 제비뽑혀 왕이 되었고(삼하 10:17-24),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등을 물리쳤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 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되었지만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믿음과 인내로 기다

14) 학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우화는 정통성 없는 불의한 권력자와 그를 도운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을 선포했다(삿 9:16-21). Richard D. Nelson, "Ideology, geography, and the list of minor judges", JSOT 31 Issue 3 (Mar 2007), 347-364.

15) 임태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13-25.

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렸고 이로 인해 책망을 받았다(삼상 13:8-9).¹⁶⁾

아말렉과의 성전(成全)에서 아말렉 족의 성 안의 사람들과 짐승 모두를 진멸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소와 양 일부 및 아각 왕을 살려두었다.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함이었다고 했지만, 탐욕을 드러낸 것이며 아각을 살려둔 것은 전리품의 선전함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다. 성전(聖戰)에서 가나안 땅과 도시들에 대한 것은 가나안 우상숭배와 예배의식이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신을 오염시킬 여지가 있어 온전히 불태우는 형벌(हे벌)이 명해졌다(신 2:34-35; 3:6-7; 20:6-7). 이러한 일로 지파동맹체 대표인 사무엘은 사울에게 폐위선언을 했다(삼상 15:25).¹⁷⁾ 그리고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 왕정제의 비운의 왕으로 전락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¹⁸⁾ 사울 자신이나 선지자에 의해 후손들에 대한 왕위승계의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다.

다윗 이전 사사시대의 아비멜렉이나 사울 시대의 왕위계승은 텔리피누법과는 상관없이 혼란으로 점철되었다. 이러한 시대상을 거쳐 다윗언약 안에서 텔리피누 칙령의 원칙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새 시대를 열게 되었다.

2) 다윗언약

다윗(c. 1011-971 BC)은 유다 지파의 이새의 막내아들로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 되었다. 그는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선구자, 및 모형으로서 특별한 위치를 지닌다(롬 1:3; 계 22:16).

다윗언약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순종하면, 다윗에게 왕손, 왕권 그리고 나라가 보장된다는 약속이었다.¹⁹⁾ 그로 “장자로 삼고 세계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여...

16) 사울은 사무엘의 약속 지연과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군사들의 혼란, 이탈 및 낙담을 막을 생각으로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고 변명하며 선지자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물론 다윗도 왕으로서 여러 번 제사를 드린 적이 있다(삼하 6:13-17; 24:25).

17) 이 사건에 대한 논의 참고: 이희학,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137-138; Diana V. Edelman, King Saul in the Histography of Judah: JSOTSS 121 (Sheffield: JSOT Press, 1991), 99-111.

18) 사울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그는 신명기 17:14-20의 왕의 법의 거대 왕궁, 막강 군대와 행정관료 등을 추구하지 않고 지파공동체적 전승을 따른 면에서 리더십의 도덕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희생물(victims)로도 설명한다. David M. Gunn, The Fate of king Saul: JSOTSS 141 (Sheffield: JSOT Press, 1980), 111; 임태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33-34.

19) 삼상 8:8-18; 삼하 7:13-16; 시 89:36-37; 대상 17:7-14. Jonathan Burnside, “Flight of the fugitives: re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iblical law (Exodus 21:12-14) and the Davidic succession narrative (1 Kings 1-2)”, JBL. 129 Issue 3 (Fall, 2010), 418-431.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구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신다는 것이었다(시 89:27-29). 양을 치던 목동에서 다윗을 선택해서 백성의 왕으로 삼아 존귀하게 하며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었다. 이 신적 보장의 언약이 왕위계승의 도덕성의 기초이다. 이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왕사상(divine king)과 유사하다.²⁰⁾

다윗은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어 왕위쟁탈전을 벌렸다.²¹⁾ 장자인 암논이 삼남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함으로 압살롬이 압논을 살해하고, 압살롬은 왕위를 취하기 위한 반란을 일으켰다가 피살되었다. 남은 왕자들 중 왕위 서열 제1순위인 아도니아가 다윗의 몸종을 구하였지만 솔로몬에 의해 거부되자 왕위즉위식을 거행했다.²²⁾ 다윗은 밧세바와의 아들 솔로몬을 후임 왕으로 지정하고 왕위즉위식을 통해 즉위시켰다(삼상 16장-왕상 2; 삼하 3:2-5; 5:14-16; 대상 3:5-8).²³⁾ 그러나 다윗은 아들들의 잘못을 바르게 경책하지 못하고 왕위 서열과 관련되어 텔리피누 원칙을 세우지 않아 유혈쟁쟁이 있었던 것은 실책이다.

솔로몬(c. 971-931 BC)도 국가 체제를 재정비하고(왕상 4:7-19, 건축(13년간의 궁전 건축)과 지혜(왕상 4:29-34) 등 큰 업적을 남겼지만, 우상숭배와 수많은 축첩제도, 백성들에 대한 중세, 억압과 착취로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 왕권의 위기

20) 임태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35-37; 이희학,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06-115; 배철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왕사상”, 「서양고대사연구」 24 (2009), 35-66.

21)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암논(압살롬에게 죽임 당함), 아비가엘이 낳은 길르얌(젊어서 죽음),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요압에 의해 죽임 당함),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솔로몬에 의해 폐위됨), 아비달의 아들 스바다, 예글라의 아들 이드르압,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시므이, 소밧, 나단이 있고, 미갈의 경우는 자식이 없으며, 기타 여러 첩들이 낳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압할, 엘리사마, 에리벨렛, 노가, 네백, 아비아, 엘이다 등).

22) 시편 2; 89:19-29; 110편에 근거한 즉위식 순서: 왕의 선택, 기름부음, 승리(의식적 전투), 나귀를 탄, 야훼 아들로 입적, 영원한 왕위 약속, 백성들의 환호, 연회 등이다. Gösta W. Ahlström, “Administration of the state in Canaan and Ancient Israel,” in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1:539.

23) 솔로몬의 등극에는 이복 형 아도니아(암논과 압살롬의 사후 최연장자)가 다윗의 승인없이 즉위를 시도했다. 요압 장군과 아비달 제사장의 지원이 있었지만,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및 기타 인물들은 솔로몬을 옹호했다. 거사가 사전 탐지되고 밧세바를 통해 다윗에게 진언함으로써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게 했다. 솔로몬의 왕위 등극을 쿠데타에 의한 것으로 다윗 왕권에 반대하는 측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Joyce Willis, Stephen Llewelyn, “Conversation in the succession narrative of Solomon”, *VT* 61 Issue 1 (Jan, 2011), 133-147; cf. 정중호, 「이스라엘 역사」, 87-108, 110-112; Antti Laato, “Second Samuel 7 and Ancient Near Eastern royal ideology”, *CBQ* Vol. 59 Issue 2 (Apr. 1997), 244-270; Burke O. Long, “A darkness between brothers: Solomon and Adonij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no 19 (Fall, 1981), 79-94.

와 국가 분열을 가져왔다(왕상 11:9-13, 28, 39).

3) 남방 유다

르호보암의 미숙한 판단과 처신으로 통일왕국은 남왕국 유다(c. 931-586 BC)와 북왕국 이스라엘(c. 931-722/1 BC)로 분리되었다. 르호보암의 왕위승계는 그의 아들 아비얌/아비야로 이어졌다(왕상 15:1-8; 대하 13:1-2). 아비얌을 이어 그의 아들 아사가 등극하고 그의 사후 여호사밧이 왕권을 승계했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함께 칭송을 받는 인물이다(왕상 22:43; 대하 20:32).²⁴⁾ 남왕국의 이러한 왕위승계는 텔리피누 칙령의 승계처럼 후대의 좋은 모델이 된다.

여호람은 이상승배 정책을 펴고,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었던 여섯 동생들을 살해했다(대하 21:4). 이것은 다윗언약에 의한 왕위가 불안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만행에 대해 선지자 엘리야는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재앙을 선포했다. 왕 자신도 창자에 중병이 들어 죽게 될 것을 예언했고, 사후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대하 21:11-15).²⁵⁾

아하시아는 모친 아달라의 영향으로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의 전통을 이어받아 남방 유다를 배교의 길로 이끌어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 사가가 비판했다(왕상 8:27; 대하 21:3-4).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던 중 부상당한 북왕국 여호람을 문병갔다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혁명을 일으킨 에후에 의해 므깃도에서 죽임을 당했다(왕하 9:27).²⁶⁾ 이 변란을 틈타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라가 왕권을 찬탈했다. 이것은 텔리피누 원칙과는 정반대의 계승이었다.

남왕국사에 큰 위기를 몰고 왔던 유일한 여성인 아달라는 아들 아하시아의 등극으로 권세를 휘두르는 태후(太后)였지만, 아들 사후 다윗 왕통의 모든 남자 즉

24) 여호사밧은 군비를 강화하고 국력을 증진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부친 아사처럼 종교개혁을 추진하고 율법 교사들로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바알 종교를 제거하고자 노력했다(대하 17). 그러나 그는 북왕국과 화해하고 아들 여호람을 아함의 딸 아달라와 정략 결혼시키고 북왕국의 대 시리아 전쟁에 참여했다(왕상 22:4). 그의 전쟁 참전은 종주국간의 관계가 아니라 자유로운 동맹으로서 참여했다. John Gray,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3rd & revised ed. (SCM Press Ltd, 1977), 448-449.

25) 엘리야의 혹독한 예언에 따라 블레셋, 에디오피아,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하여 궁궐을 노략하고 왕족들을 인질로 잡고, 여호람의 아들 중 여호아하스/아하시아만 남기고 모두 죽였다(대하 22:1,5).

26) 신명기 사가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였다고 했다. 이 불일치를 조화시키는 시도 중 하나는 형제라는 말이 친형제일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의 왕족들로 확대해석한다면 가능하다. 임태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120.

“왕의 씨”를 진멸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브앗/ 여호세바가 왕자인 요아스를 6년간 숨겨 살육을 피하고 양육했다. 그녀는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나뭇 포도원 사건의 잔인성과 유사한 천륜과 인륜을 짓밟는 만행을 보여준다. 6년간 유다 왕으로 통치했지만 다윗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왕위 정통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한 아달랴 폐위 궁중혁명으로 제거되고 나이 7세의 요아스가 왕위에 추대됨으로 다윗의 왕통이 계승되었다(왕하 11:1-12; 대하 22:10-11; 23:1-21).

여호야다의 옹립으로 즉위한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섭정 기간 동안에는 바알 산당을 훼파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등 개혁을 했지만, 여호야다의 사후 타락하여 아세라 목상과 우상송배에 빠지고 심지어 배교를 경고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다(왕하 11:16; 대하 22:11-24:14; 24:20-22). 아람-시리아의 침략으로 상당수 사람이 죽고 고가의 배상을 했지만, 요아스가 전쟁 중의 부상으로 침상에 있을 때 스가랴의 처형에 대해 반감을 품었던 신하들의 반란으로 죽었다(왕하 12:1-21; 대하 24:23-25).

요아스의 피살로 왕이 된 아마샤는 왕권을 확립한 뒤 부왕을 암살한 자들을 처형했지만, 텔리피누법 처럼 연좌제를 고쳐 자녀들을 용서했다(신 24:16, 왕하 14:6).²⁷⁾ 예루살렘의 반란으로 위협에 처한 그는 남부 라기스로 도망했지만, 그를 추적하던 반도들에 의해 살해되고 아들 웃시야가 등극했다(왕하 12:21; 13:12; 14:1-22; 대하 25).

웃시야/ 아사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동시대 인물로 아람-시리아의 침략과 억압이 없어 최고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며 부국강병책을 폈다(대하 26:10).²⁸⁾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 있을 동안 하나님을 찾다가 그의 사후 바른 길

27) 에돔 정복에 성공한 자만으로 북왕국을 침입하였다가 참패했다. 도리어 북방국의 요아스가 그를 포로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과 왕궁 보물을 탈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볼로로 잡아갔다(왕하 14:12-14; 대하 19-24).

28) 공격용 화살과 큰 돌들을 던질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예루살렘 방비를 재정비하며, 군대를 재편하고 장비를 개선했다(대하 26:9, 11-15). 농업과 산업을 일으키고 망대를 세우며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다.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관리를 임명하고 육축을 장려하는 등 부국강병책을 폈다(신 26:10). 국부의 기초였던 주요 해양 교통로인 페니키아 항구와 홍해를 통한 교역(왕하 14:22; 대하 26:2),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아라비아로 통하는 무역로를 장악하여 대상들로부터 거두는 통행세와 물물교환 등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 요인이었다(대하 26:6-8). 김태훈, 「아다드니라리 Ⅲ의 서방원정과 삼시일루, 그리고 여로보암 Ⅱ의 군사-경제적 성공」, 『구약논단』 13권 4호 통권26집 (2007년 12월), 129-146.

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사로이 분향한 죄로 문둥병에 걸려 종신토록 별궁에 살다가 죽었고, 병중 아들 요담이 섭정하다가 등극했다(왕하 15:5; 대하 26:4-5, 16-19).

요담은 부친처럼 분향하지는 않았지만, 성전 윗문을 세우고 성전 동남쪽 오벨 성곽도 쌓아 다메섹과 북방 이스라엘의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의 위협에 대처했다(왕하 15장, 대하 27장). 사후 아들 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했다.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고 힌놈의 골짜기에 자식을 제물로 불사르는 등 배교를 행하였다(왕하 16:2-4; 대하 28:1-4). 시리아-에브라임 전쟁(Syro-Ephramite War)에서 이샤야 선지자의 기별을 거부하고 친 앗시리아 정책을 추구했다.²⁹⁾ 해외로부터의 군수품과 사치품들의 수입으로 인한 대금 결제를 위해 집약적 농업이 강요되고, 대지주들이 발생하여 약자들을 억압했다. 당시의 사회상은 부도덕하고 부패했다.³⁰⁾ 사후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했다.

히스기야(c. 715-686 BC)는 29년의 재위 기간 중 나라를 잘 다스리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의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반 앗시리아 정책을 펴다(왕하 18:1-8),³¹⁾ 기원전 701년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 모든 성읍들을 쳐서 취하고 막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장식품을 뺏기고 보고(寶庫)를 털어 그 요구에 응했다(왕하 18:13-16). 산헤립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로 침공해 사자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위협했다.³²⁾ 파란만장한 삶을 산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에게 왕권을 승계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정사에서 가장 장수한 왕이지만(55년, c. 697-642 BC), 부

29) 아하스가 반 앗시리아 동맹 참여를 거부하자, 북방 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시리아의 르신,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대하 28:17-18). 이샤야 선지자의 기별을 거부한 채, 그는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받으며 디글랏 빌레셀(c. 745-727 BC)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다메섹으로 소환되어 봉신조약을 체결하고 이방신을 받아드려 예루살렘에 이교 제단을 세웠다. 이것은 남방 유다 멸망을 가속화했다(왕하 16:7-8; 대하 28:16-21). 이종근,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과 디글랏 빌레셀 3세의 패권", 『신학논단』 61 (2010년 9월), 102-105.

30) 대지주들이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사치했다. 재판관들마저 정의를 세우지 않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생계와 보수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정의를 왜곡했다(사 58; 미 3:5-11). 고대 세계의 법과 선지자의 주 강령은 법과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종근, "함무라비 법의 종교성", 『구약논단』 16권 4호 (2010, 12), 157-187; 김태훈, "아다르나라라 Ⅲ의 서방원정과 삼시일루, 그리고 예로보암 Ⅱ의 군사-경제적 성공", 16-17.

31) 히스기야는 애굽, 블레셋, 시돈, 에돔, 모압 등과 동맹을 체결하여 반 앗시리아 동맹의 맹주가 되고자 했다. 예루살렘의 수도 및 성벽의 수리 등으로 앗시리아를 반격하려는 전투 준비를 했다. 이샤야 선지자는 그러한 도모를 견책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권고했다(사 22; 28:7-29; 29:1-16; 30:8-17; 32:9-14).

친과는 달리 조부 아하스의 친 앗시리아 정책으로 선회해 다신적 종교혼합주의를 받아들였다(왕하 21장). 우상숭배를 도입하고 힌논의 골짜기에서 목록에게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려 여호와와의 진노를 격발하여 아에 대한 전설적인 인물로서 심판의 원인을 제공했다. 앗시리아 포로 이후 크게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기도가 응답되어 왕위가 회복되었다. 이전에 숭배하던 모든 신을 제거하고 성전을 중수하고 여호와께만 제사하였다(대하 33:1-20). 사후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계승했다.

아몬은 우상숭배 정책을 펴다가 2년만에 반기를 든 신복들에 의해 왕궁에서 살해당했다. 요시아는 아몬의 아들로 여로보암 때에 그의 출생과 사역이 예언되었던 인물이다.³²⁾ 특히 그는 이미 멸망한 북왕국의 납달리와 므낫세까지를 포함하여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숭배를 중지시켰다(왕상 13:1-2; 왕하 22:1; 23:4-8, 11-16, 19-20, 26). 전심으로 율법을 준행하고 야훼 종교를 개혁했지만, 기원전 609년 애굽왕 느고가 앗시리아 원군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다가 전사했다(왕하 23:25, 29; 대하 35:23-24). 예레미야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공적을 찬양했다(렘 22:15-16). 그의 막내아들 여호아하스가 뒤를 이었다(왕하 23:30; 35:24).

여호아하스(별명은 아하시야[대하 22:1]/ 살룸[렘 22:11])는 부친 요시아 살해 후 “그 땅의 사람들이” 세운 반 애굽과의 왕으로 3개월간 재위하다, 애굽왕 느고에게 잡혀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다(왕하 23:30-34). 이 격동의 시기에 유다 왕궁은 친 바벨론파와 친 앗시리아파, 친 애굽파 등의 파벌로 극심하게 요동

32) 산헤립의 침공 앞에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했다. 이사야를 통해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자를 보내어 앗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다(왕하 19:34-37).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의 생명 연장의 징표로 일영표가 10도 후퇴케 되었다(왕하 20:1-10). 이즈음 바벨론 므로닥발라단이 반 앗시리아 동맹 결속의 일환으로 사자를 보내어 히스기야를 문병하자 히스기야는 보물고와 군기고 및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어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 경고를 받았다(왕하 20:12-18). 치적 중에 앗시리아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수로를 만들어 예루살렘 성중으로 물을 끌어 들인 것은 특기할만하다(왕하 20:20). 산헤립의 유다 침공을 한 차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왕하 18:13-16), 애굽 왕 디르하기(Tirhakah, c. 690-664 BC, 왕하 19:9; 사 37:9)가 언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두 차례의 침공으로 보게 된다(왕하 18:17-19:37). 디르하기는 누비아 왕국의 대군주의 한 사람인 피양키의 아들로 에디오피아 왕조 제 25왕조의 제 3대 마지막 왕이다. 김영진, 『이스라엘의 역사』, 340-341; A. K. Grayson, “Assyria: Sennacherib and Esarhaddon (704-669 BC)”, CAH III/1, 103-141.

33)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왕하 22:3-6). 즉위 18년에는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절을 지켰다(왕하 23:22-23). 율법책을 발견하여 백성들에게 그것을 읽어 주고 백성으로 언약을 세우고 지키게 했다(왕하 23:1-3).

쳤다. 이 풍전등화의 시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천하대세가 이미 바벨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친 애굽 정책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친 바벨론 정책을 권고했다.³⁴⁾ 그러나 왕실의 기류는 친 애굽 정책 일변도였다.

여호야김(Jehoiakim)은 느고가 기원전 605년 7월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이집트로 유배시킨 뒤 그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운 요시아의 첫째 아들로 여호아하스의 형이다(본명은 엘리야김[Eliakim]). 여호야김 4년(605 BC) 유프라테스 강변 시리아의 갈그미스에서 앗시리아를 원군했던 이집트의 느고와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브갓네살과의 세기적 전투에서 느브갓네살이 승리했다(왕하 24:7). 이로 앗시리아 영토의 주도권에 대해 메대는 앗시리아 심장부와 북부 영토를 차지하고, 바벨론은 나머지 메소포타미아와 서부 영토를 차지함으로 시리아와 남왕국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신 바빌로니아 제국과 이집트의 운명적인 주도권 쟁탈의 장이 되었다.³⁵⁾ 느고와 느브갓네살의 주도권 외중 기원전 598/597년 겨울엔 여호야김의 조공 거부로 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기원전 598. 12. 17-597. 1. 15).³⁶⁾ 여호야김의 사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등극했다(왕하 24:6-8, 대하 36:8-9).

여호야긴(일명 여고냐/ 고니야, 렘 22:24; 24:1; 37:1)의 즉위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은 기원전 597년 3월 16일에 함락되었다. 그는 애굽의 꼭두각시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심한 견책을 받았다(렘 22:13).³⁷⁾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37년의 감금 후, 에월 므로다에 의해 석방되었다(왕하 24:8-16; 25:27 대하 36:10; 에 2:6; 렘 27:20; 29:1-2; 겔 1:2).

34) 렘 21:8-9; 27:7-17; 29:5-7, 10-13; 42:10-17; 28:10-17. 김영진, 「이스라엘의 역사」, 353; Juha Pakkala, "Zedekiah's fate and the dynastic succession", JBL Vol. 125 Issue 3 (Fall, 2006), 443-452.

35) 여호야김 시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집트의 지배가 계속되었지만 느브갓네살은 기원전 604년엔 블레셋 원정에 나서 아스글론을 약탈했다. 위협을 느낀 여호야김은 금식을 선포하고, 친 애굽정책에도 불구하고 느브갓네살에게 굴복하여 봉신이 되었다(렘 36:9). 느브갓네살은 기원전 601/600년 겨울에 다시 이집트를 침공하려다 국경에서 격퇴당해 바벨론으로 물러나 한 해를 머물며 군대를 재건했다. 느고는 팔레스타인 남부 해안 지방을 따라 다시 군사행동을 했고 여호야김은 반 바벨론 연합전선에 합류했다.

36) Anson F. Rainey & R. Steven Notley, Sacred Bridge: Carta's Atlas of the Biblical World, an Overview of the Ancient Levant (Jerusalem: Carta, Jerusalem, 2006), 263-264.

37) 여호야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렘 26:20-24), 친 바벨론 정책을 권고하는 그의 기별을 거부하며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렸다(렘 36:23). 압제, 불의, 불공평으로 노동을 강요하고, 사치, 탐람과 무죄자의 피 흘림과 강포를 자행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신랄한 비난을 받았다(렘 22:13-19).

시드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최후 왕으로 요시아의 막내아들이다(여호야긴의 숙부, 왕하 24:17-25,30, 대하 36:11-21). 그는 계속되는 느부갓네살의 시리아-팔레스타인 원정 및 친 애굽 파의 갈등의 와중에서 불우한 삶을 살았다.³⁸⁾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속주(province)로 편입시키고 총독으로 그달리야를 임명했지만, 얼마 못 되어 암살당했다(왕하 25:23). 유다 멸망의 원인은 신명기 사가나 역대기 사가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모두 우상숭배였다고 설명했다(왕하 16:3; 21:2; 대하 28:3-7; 33:2-11; 36:8-9,12-14; 겔 6:3-7; 8:3-16).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시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권고한 예레미야의 기별을 거부한 체 잘못된 외교 및 군사 정책을 고집했던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다.³⁹⁾

남왕국의 왕위계승은 텔리피누 칙령의 정신을 따랐다. 다윗언약에 의해 그의 후손들이 왕좌를 차지했는데 대부분 장자나 다른 아들이 왕권을 승계하고 왕위쟁탈전이 거의 없었다. 아달랴를 제외하고는 다윗언약에 의한 왕위 정통성과 합법성이 보장되고, 이러한 히브리 신앙의 기초에서 왕권이 계승되었다. 이런 면에서 왕위계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는 고대근동에서 특이한 한 역사를 제시한다.

4)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c. 931-910 BC)는 솔로몬의 학정에 반발하여 솔로몬 사후 애굽에서 돌아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정책의 기회를 타서 북방 10지파의 지지를 받아

38) 기원전 595/594년에 바벨론에서 일어난 반란의 소식에 시드기야는 예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등의 국제적인 반 바벨론 연대에 가담하려다가 예레미야의 비난을 받았다(렘 27장; cf. 51:59). 친 애굽 정책을 계속하다가 기원전 591년 경 누비아에서 25왕조의 잔여 세력을 진압한 프삼틱 2세(Psamitik II/ Psammetichus, c. 595-589 BC)가 유다와 블레셋을 위시하여 페니키아에 반 바벨론 정책을 주도했다. 그의 사후 호브라(Hophra/ Apries)가 왕위에 올라 훨씬 더 적극적인 반 바벨론 정책을 폈다. 이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보내 기원전 588년 1월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30개월 동안 포위공격 후 기원전 586년 7월에 예루살렘을 함락했다. 이집트 원정군이 옴으로 포위 공격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지만(렘 37:5,11), 아음을 타 도망 하였던 시드기야는 잡혀 비참한 상태로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 그 자식들이 면전에서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해 눈을 감자 눈빼임을 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왕하 25:1-7; 렘 32장-34:37; 겔 12:10-14). Edwin R. Thiele,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New Rev. Ed.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83), 190-191; 이종근,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월신 종교의 종교정책," 『종교연구』, 62 (2011. 3): 342.

39) 이종근,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과 디글랏 빌레셀 3세의 패권", 『신학논단』, 61 (2010년 9월), 107-108.

왕위에 올랐다(왕상 12:20). 그는 항상 남방 유다를 적대시하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자신을 배반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금송아지 두개를 만들어 하나는 북방 단과 하나는 남방 벤텔에 두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함으로 그는 국가 분립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분리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후일 자신과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로 이끌었다(왕상 12:25-33). 여로보암은 재위 22년에 죽고 그 아들 나답이 계승했다.

나답은 재위 2년만에 블레셋에게 점령된 길브돈성 포위 중 부하장군 바아사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스라엘의 초기 왕위는 남왕국과 달리 유혈 방식으로 양위가 이루어져 후대를 위한 나쁜 선례가 되었다. 이는 텔리피누 칙령의 정신과는 다르게 자신의 아들에게 왕권을 승계하지 못하고 변란으로 왕위가 교체되고 여로보암 왕조 24년의 막이 내렸다(왕상 14:17-20; 15:25-28).

바아사는 천민 출신으로 나답과 여로보암의 온 가족을 멸하고 왕위에 올랐다. 디르사를 수도로 정하고 24년간 통치했다(c. 906-883 BC). 일생동안 유다왕 아사와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왕래를 통제했다. 여로보암 가문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한 채 그 자신도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아,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었다(왕상 15:16-17, 33-34; 16:3-4; 대하 16:1).

엘라도 재위 2년만에 궁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연회 중 신하 시므리에게 피살되었다. 시므리는 엘라의 병거 절반을 주관하는 군권(軍權)을 장악한 대장으로서 바아사의 씨족 전체를 몰살시켰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데는 실패했다. 백성들이 군대장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고 시므리를 대항하여 수도 디르사를 포위하고 성을 함락시켰다. 시므리는 왕궁 위병소에 불을 지른 후 그 속에서 최후를 맞음으로 시므리의 7일천하는 막을 내리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었다(왕상 16:8-20).⁴⁰⁾

시므리의 반역으로 엘라 왕이 시해되었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파로 나뉘어 디브니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측과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측으로 반씩 갈렸다. 디브니와 오므리 사이에 5년간의 내전이 계속되다가 오므리가 디브니를 누르고 왕위에 올랐다.⁴¹⁾ 은 두 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사 그 위에 성

40) Simon DeVries, 1 Kings: WBC 12 (Waco, TX: Word Books, 1985), 197.

41) 딜레,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119-120.

을 건축하고 국가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겨 사마리아를 북왕국의 수도로 명명했다(왕상 16:21,24). 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정책을 따라 유다 및 페니키아 인들과는 우호관계, 요단 동부의 시리아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국내적으로는 화해정책을 펼쳤다. 이것은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아합에 의해서도 추진되었다.

아합은 등극 후 주변국들과의 결혼동맹을 통해 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자 했다. 두로왕 옛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바알숭배를 도입하였다. 자신의 딸 아달랴도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켰다.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 참여했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전사하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왕상 16:29-33; 21:25-26; 22:34-37,40).

아하시야는 아합과 마찬가지로 바알을 숭배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왕상 22:52-53).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자를 보내 병세를 물었지만, 엘리야는 왕의 죽음을 예언했다. 무자한 채로 죽자, 아합의 아들이자 아하시야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다(왕하 1:4-6,8-12,15-17).

여호람은 시리아의 길르앗 라못을 지키는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군대 지휘관인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 여호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를 살해하고 왕위에 올랐다(왕하 8:28-29; 9:7,24-26). 이로 오프리 왕조는 막을 내리고 예후 왕조가 시작되었다.

예후는 엘리사의 제자에 의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후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70인과 그들에게 속한 자를 모두 다 죽이고 바알 종교를 말살했다. 이러한 개혁으로 4대손까지 왕위계승의 약속이 선언되었지만, 살륙과 공포의 통치를 하면서 선정을 베풀지 못했다.⁴²⁾ 예후는 28년간 통치했고 4명의 후대 왕들이 약 89년 다스렸다(c. 841-752 BC). 사후 아들 여호아하스가 등국했다(왕하 9-10장).

42) 예후에게 4대에 걸친 왕권 보장과 유사한 사례로는 신 앗시리아의 에살하돈에게 2대의 왕권 약속이 주어졌다. 왕권의 정통성과 통치력에 대한 신적 보장이 양자 모두 불만정한 시기에 주어졌지만, 백성들이 그러한 예언들을 믿는 것만큼 통치의 합법성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David T. Lamb, "The Non-Eternal dynastic promises of Jehu of Israel and Esarhaddon of Assyria", VT 60 Issue 3 (Jul, 2010), 337-344.

여호아하스의 17년간 재위 중 금송아지 숭배에 대한 징벌로 아람 왕 하사엘이 침입하여 많은 성읍이 점령되고 군대가 감소되었다. 여로보암의 노선을 따라 우상숭배자의 낙인이 찍힌 채 왕권을 여호아스에게 상속하고 죽었다(왕하 13:1-7,9).

여호아스/ 요아스는 여로보암 2세의 부친으로 엘리사의 임종 방문 시, 적국 아람을 세 번 전승하리라는 예언에 따라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되찾았다(왕하 13:25). 에돔에 대한 전승 여세로 이스라엘을 침입했던 유대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을 파괴했다(왕하 14:8-14).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c. 841-753 BC)의 제4대 왕으로 그의 치세는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융성한 때였다. 앗시리아의 침략으로 시리아가 쇠약해지는 틈을 타 하맛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실지(失地)를 회복하였다(왕하 14:25). 선지자 아모스는 번영의 이면의 우상숭배, 사치, 방탕 등의 종교적, 도덕적 부패와 사회악을 경고하고 임박한 멸망을 예언했지만(암 2:6; 5:27; 6:14), 호세아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구원을 선포했다(호 1:1,7; 3장). 사후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겨우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 살해되고 예후 왕조가 끝났다(왕하 15:10).

살룸도 1개월 만에 므나헴에 의해 살해되고 왕위가 탈취되었다.⁴³⁾ 초기 수도 디르사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므나헴이 스가랴의 암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가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독재와 잔인성은 많은 적을 만들고 또한 친 애굽파와 친 앗시리아파의 대립이 격화되던 중(호 7:11), 앗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3세(불, 왕하 15:19)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지주들에게 은 1천 달란트를 징수하여 바치고 봉신국이 될 뜻을 표명해 위기를 면했다(왕하 15:19-20; 호 4). 그의 정책은 반 앗시리아 진영의 반대를 받았지만, 위기 중에서도 10년간의 치세 후 그는 아들 브가히야에게 왕위를 계승했다(재위 BC 747- 738, 왕하 15:14-22).

43) 이 시대상은 부족들이 세습 왕권을 거부하며 각자가 왕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왕권을 둘러싸고 유혈 경쟁을 했다(사 9:19-21; 호 8:4). 므낫세 지파의 지지를 받은 므나헴이 에브라임 지파의 후원을 얻은 살룸을 제압하고 왕권을 쟁취했다. 이것은 요단강 동쪽(Transjordan) 지파들과 요단강 서쪽(cis-Jordan) 지파들 간의 라이벌 전 성격이 짙다. 살룸의 1개월만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혼란상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임태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233-234; Brad E. Kelle, *Ancient Israel at War: Essential Histories* (Oxford: Osprey Pub, 2007), 61-63; T. R. Hobbs, *2 Kings: WBC 13*, ed. David A. Hubbard et al (Waco, TX: Word Books, 1985), 195; Rainey & Notley, *Sacred Bridge*, 220.

브가히야는 2년 정도 통치하다가 반 앓시리아파인 베가에게 피살당했다(왕하 15:23-25). 여로보암 2세의 말년경부터 갈릴리와 길르앗 지방을 군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여 수도를 통치했던 왕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⁴⁴⁾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다가 실패했다. 디글랏 빌레셀을 대항해 반 앓시리아 동맹을 결성했다가 디글랏 빌레셀의 공격으로 9지방을 빼앗기고 백성이 포로로 유배되었다. 친 앓시리아파의 호세아가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왕이 되었다(왕하 15:29-30; 16:5).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사마리아에서 9년 재위 후 애굽의 지원을 믿고 앓시리아에 조공을 거부하자 살만에셀 5세에 의해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200여년의 북왕국 사직(社稷)이 끝나고 되었다. 히브리 신앙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앓시리아로 유배되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왕하 17:24).

북방 이스라엘의 9왕조의 19왕들 중 정상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경우는 여로보암 1세와 예후뿐이고, 상속의 의한 즉위는 여로보암 1세의 아들 나담, 바아사의 아들 엘라,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과 그의 아들들인 아하시야와 여호람,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그의 손자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 등 10명이다. 혁명이나 외세에 의한 전쟁으로 살해된 왕들은 여로보암 왕조의 나담, 바아사 왕조의 엘라, 시므리 왕조(시므리),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여호람, 예후 왕조의 스가랴, 살룸 왕조(살룸), 므나헴 왕조의 브가히야, 베가 왕조(베가), 호세아 왕조(호세아) 등 10명이다. 200여년 역사의 19왕들 중 절반 이상이 살해되고 왕권이 교체되었다. 특히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가 살룸에 의해 살해된 뒤(c. 752 BC) 북왕조의 멸망 시까지 30여년 동안 5명의 왕들이 왕위 쟁탈전에서 살해되었다. 이것은 예후 왕가의 몰락뿐만 아니라 북왕국의 패망을 가져왔다. 이러한 왕위 찬탈극은 히타이트의 텔리피누 이전 60여년의 왕권 유혈극과 유사한 암흑기였다. 북왕국의 왕위계승은 남왕국의 다윗언약과 같은 신적 보장과 정통성이 결여되었고,⁴⁵⁾ 텔리피누 칙령의 왕위 승계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무질서와 혼란의 결과이다.

44) Kelle, *Ancient Israel at War 853-586*, 60-63.

45) Bright, *A History of Israel*, 271.

4. 텔리피누법과 이스라엘의 왕위계승법

텔리피누 왕위계승법은 왕이나 판구의 위원이거나도 합법적 왕위 계승자를 살인하거나 그를 제거하고 왕권을 쟁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연좌제를 폐지함으로써 복수의 악순환을 막도록 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언약에의 의해 23명의 왕들 중 대부분 장자나 형제들이 왕위를 계승했다. 주로 단일 지파로 형성된 남왕국은 정치적으로 비교적 왕조의 안정을 누리면서 340여년 왕위의 승계가 무사히 이루어졌다. 여호람, 아달랴, 아하시아, 여호아하스 등과 느브갓네살의 서진정책으로 인한 애굽과의 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왕위가 교체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텔리피누 칙령의 방식대로 계승이 이루어졌다. 다윗언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왕위계승을 위한 방안으로서 왕실의 음모와 복수욕에 의한 유혈극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하늘의 처방으로서 텔리피누 칙령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고대세계에서 왕위계승에 대한 하나의 햇불이었다.

반면 북왕국은 남왕국보다 더 많은 지파들과 영토를 소유했지만 남왕국의 다윗언약에 기초한 왕권의 카리스마가 부재했다. 여로보암이 독립하자 야훼께서 보낸 선지자 아히야가 북왕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다윗언약과 유사한 약속을 선언했다(왕상 11:38). 심지어 르호보암이 북왕국을 통일하려고 전쟁을 시도했을 때도 선지자는 북침을 만류했을 정도였다(왕상 12:21-24). 그러나 북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다윗언약을 짓밟고 히브리 신앙을 거부하는 정책을 펼침으로 야훼 신앙에 의한 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결여되었다(왕상 12:25-33).

왕위계승의 신적 보장이나 그것을 지키는 정책이 결여되자, 북왕국은 여로보암, 바아사, 오므리, 예후, 므나헴 왕조로 대를 이어 많은 반란과 유혈혁명으로 통치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남왕국보다는 여러 지파 및 이질적인 백성들로 구성되고, 지형학적으로 아람-시리아와 대치하고 있던 관계로 군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자연스럽게 군사지도자들이 반란을 주도하게 되었다(시므리, 오므리, 예후, 므나헴).⁴⁶⁾ 이러한 암살과 유혈혁명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은 왕조 시작 200여년 만에 앗시리아 제국의 포로가 되어 민족이 유배되는 국운의 몰락을

46) 김영진, 「이스라엘의 역사」, 255-256.

가져왔다. 북왕국의 왕권의 절반 이상이 텔리피누 칙령과는 무관하게 무질서와 유혈로 진행되었다.

텔리피누법은 히타이트 전 역사에 걸쳐 시행되었고, 이것은 인류 문명사의 권력항배에 대한 하나의 금지탑이었다. 이러한 법정신으로 왕위계승이 이루어진 나라는 고대세계에서 대체적으로 체제의 안정적 이양을 가져올 수 있었다. 테리피누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왕조에서는 후대의 여러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급격한 통치권의 변화로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고 국가와 민족의 존립에 위협을 초래했다.

5. 결론

텔리피누법은 오래된 왕위 승계와 관련된 유혈 사태를 막으려고 만든 칙령이다. 하투실리 1세부터 텔리피누 왕 즉위까지 60여년의 계속된 왕위 찬탈극을 막기 위해 텔리피누는 왕위계승 서열을 규정하는 칙령을 제정하고 시행했다.

첫째, 왕위 서열 1위(정실부인의 아들) 왕자만이 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서열 1위의 왕자가 없으면 서열 2위(후궁에게 난 아들) 아들이 왕이 된다.

셋째, 왕에게 아들이 없을 시는 정실부인의 딸의 사위가 왕이 된다.

물론 이것은 동일 서열의 왕자들 중 장남만이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왕이 생존할 시 그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로서 낮은 서열의 왕자들이 앞선 경쟁자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왕위계승법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국가의 권력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확정한 면에서 의미가 있다.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오늘날의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사법적 기구인 판구를 통해 이 규칙을 범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 심지어 왕 또는 판구의 위원이라도 살인을 하거나 합법적 왕위 계승자를 제거하고 왕권을 쟁취했다면 판구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이 칙령은 연좌제를 폐지하도록 했고 범죄자는 당사자만이 처벌을 받았을 뿐, 그 이외의 가족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텔리피누 칙령은 히타이트 법 역사에 큰 기여를 했다.

고대 시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영국 왕실의 유사한 왕위 서열처럼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

텔리피누법은 권력승계에 대한 인류 문명사의 문화유산에 속한다. 이러한 법 정신으로 왕위계승이 이루어진 나라는 비교적 체제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왔고, 그렇지 않을 시는 체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혼란이 뒤따랐고 국가의 패망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왕국은 다윗언약에 의해 외세의 침략이나 왕위찬탈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텔리피누법처럼 평화적으로 장자나 아들들에게 왕위계승이 이루어짐으로 비교적 안정적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다윗언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왕위계승을 위한 방안으로서 왕위 찬탈극과 왕실의 음모 및 복수욕에 의한 유혈극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하늘의 처방으로서 텔리피누 칙령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고대세계에서 왕위계승에 대한 하나의 햇불이었다.

반면 북왕국은 남왕국보다 더 많은 지파들과 영토를 소유했지만 남왕국의 다윗언약에 기초한 왕권의 카리스마가 부재했다. 북왕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다윗언약과 유사한 약속이 주어졌지만,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다윗언약을 짓밟고 히브리 신앙을 거부하는 정책을 펼침으로 야훼 신앙에 의한 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결여되었다. 이런 정책을 이어받은 북왕국의 왕권은 대부분 텔리피누 칙령과는 무관하게 계속되는 군사혁명과 유혈극으로 인해 급격한 체제 변화와 국가적 혼란을 가져왔다. 이로써 왕조 출범 200여년 만에 앗시리아 제국의 포로가 되어 민족이 유배되고, 국운의 몰락을 가져왔다.

5. 참고문헌

- 김 성, “카데쉬 1275: 카데쉬 전투와 고대근동의 역학관계”, 「고대 지중해 세계의 전쟁과 인문학」 (한국서양고전학회 2009년 학술대회: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58동 시청각실, 2009년 6월 12일), 1-11.
- 김영진, 「성서와 민족: 이스라엘 역사 연구 2」 (서울: 올림하타낙, 2003).
- _____, 「조약과 언약: 고대근동의 국제조약과 구약성서의 언약 연구」 (서울: 한들출판사, 2005).

- _____, 「이스라엘의 역사」 (서울: 이레서원, 2008).
- 김태훈, “아다드니라리 Ⅲ의 서방원정과 삼시일루, 그리고 여로보암 Ⅱ의 군사-경제적 성공”, 「구약논단」 13권 4호 통권26집 (2007년 12월), 129-146.
- 노세영 / 박종수, 「고대근동의 역사와 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반 드 미에롭, 마르크, 「고대 근동 역사」(김구원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 배철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앙사상”, 「서양고대사연구」 24 (2009), 35-66.
- 비르기트 브란다우/하르트무트 쉬케르트, 「히타이트」 (장혜경 옮김), (서울: 중앙 M & B, 2002).
- 세람, C. W. 「발굴과 해독: 고대 최강대국 히타이트, 100년 동안의 발견 이야기」 (오홍식 옮김), (서울: 푸른역사, 2000).
- 에드윈 R. 달레,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한정건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이종근,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과 디글랏 빌레셀 3세의 패권”, 「신학논단」 61 (2010년 9월), 102-105.
- _____, “신 바벨론 제국의 나보니두스에 관한 소고”, 「성경과 고고학」 60 (2008년 겨울), 24.
- _____, “함무라비 법의 종교성”, 「구약논단」 16권 4호 (2010. 12), 157-187.
- 이희철, 「히타이트: 점토판 속으로 사라졌던 인류의 역사」 (서울: 리수, 2004).
- 이희학,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임태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정중호, 「이스라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중앙일보, 인터넷판 (2008.04.21 11:39); Economist, 10/15/2011, vol. 400, Issue 8755, 66. http://ko.wikipedia.org/wiki/%EC%98%81%EA%B5%AD%EC%9D%98_%EC%99%-95%EC%9C%84_%EA%B3%84%EC%8A%B9_%EC%88%9C%EC%9C%84
- 칙령 전문 참조: <http://www.hittites.info/translations.aspx?text=translations/historical-%2fTelipinuProclamation.html>
- 미션 디렉스바이블 및 바이블렉스 8,0
- Akurgal, Ekrem, *The Hattian and Hittite Civilizations* (Izmir: Turkey, 2001).
- Beckman, Gary, “Royal ideology and state administration in Hittite Anatolia”,

-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I:535.
- Beckman, Gary. "The wrath of Telipinu (1,57)", in *The Context of Scripture: Monumental Inscriptions from the Bible*, eds. William W. Hallo, & K. Lawson Younger (Leiden: Brill, 2000), I:151.
- Bright, John, *A History of Israel*, 3r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 Bryce, Trevor R. "The role of Telipinu, the priest, in the Hittite kingdom". *Hethitica* 11 (1992), 5-18.
- Burnside, Jonathan. "Flight of the fugitives: re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iblical law (Exodus 21:12-14) and the Davidic succession narrative (1 Kings 1-2)", *JBL* 129 Issue 3 (Fall, 2010), 418-431.
- Ceram, C. W. *The Secret of the Hittites: the Discovery of an Ancient Empire* (London: Phoenix Press, 2001).
- DeVries, Simon. *1 Kings*: WBC 12 (Waco, TX: Word Books, 1985).
- Edelman, Diana V. *King Saul in the Histography of Judah*: JSOTSS 121 (Sheffield: JSOT Press, 1991).
- Gray, John.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3rd & revised ed. (SCM Press Ltd. 1977), 448-449.
- Grayson, A. K. "Assyria: Sennacherib and Esarhaddon (704-669 BC)", *CAH* III/1, 103-141.
- Gunn, David M. *The Fate of King Saul*: JSOTSS 141 (Sheffield: JSOT Press, 1980), 111.
- Guterbock, Hans G./Sperling, S. David. 2nd ed. "Hittites", *EJ*, 2nd ed. 5:290-291.
- Hobbs, T. R. *2 Kings*: WBC 13, ed. David A. Hubbard et al (Waco, TX: Word Books, 1985), 195.
- Hoffner, Harry A. *Hittite Myth*, SBL Writings from the Ancient World, vol. 2, ed. Gary M. Beckman (Atlanta: Scholars Press, 1990), 2-5.
- Houwink Ten Gate, Philo H. J. "Hittite history", *ABD*, III:219-225.
- Kelle, Brad E, *Ancient Israel at War: Essential Histories* (Oxford: Osprey Pub.

- 2007).
- Laato, Antti, “Second Samuel 7 and Ancient Near Eastern royal ideology”, *CBQ* Vol. 59 Issue 2 (Apr. 1997), 244–270.
- Lamb, David T, “The Non-eternal dynastic promises of Jehu of Israel and Esarhaddon of Assyria”, *VT* 60 Issue 3 (Jul, 2010), 337–344.
- Lurker, Manfred, *The Routledge Dictionary of Gods and Goddesses, Devils and Demons* (NY: Routledge, 1987).
- Nelson, Richard D, “Ideology, geography, and the list of minor judges”, *JSOT* 31 Issue 3 (Mar 2007), 347–364.
- Pakkala, Juha, “Zedekiah’s fate and the dynastic succession”, *JBL* Vol. 125 Issue 3 (Fall, 2006), 443–452.
- Rainey, Anson F./Notley, R. Steven, *Sacred Bridge: Carta’s Atlas of the Biblical World, an Overview of the Ancient Levant*, Jerusalem: Carta, Jerusalem, 2006.
- Thiele, Edwin R,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New Rev. Ed.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83.
- van Set ers, John, “Historiography of the Ancient Near East”, in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Jack M. Sasson(eds). (NY: Charles Scribner’s Sons, 1995), IV: 2240–2241.
- Walton, John ,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90.
- Willis, Joyce/Llewelyn, Stephen. “Conversation in the succession narrative of Solomon”, *VT* 61 Issue 1 (Jan, 2011), 133–147.

검색어

히타이트

텔리피누 칙령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왕위계승

Hittite Telipinu Edict and Succession of Kings in Ancient Israel

Jong-Keun Lee, Th.D.

Professor, College of Theology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ompare Telepinu Edict with the royal succession in the ancient Israel by literary comparative method. Telipinu Edict dictated the laws of peaceful succession in the Hittite throne. It was designed to stop the royal murders which had taken place in the previous decades. The rules of successions are as follows:

1. Only a king's son of the first rank shall be installed as a king.
2. If there is no king's son of the first rank, the one who is a son of second rank becomes king.
3. If there is no male royal child, whatever, a man who will marry the daughter of the first rank shall become king.

www.kci.go.kr

The edict was meaningful in terms of legitimizing kingship in the ancient world. The kinship was guaranteed and they were able to punish the violators of this edict through Panku, the council of elders, equivalent to modern constitutional court. The edict abolished the involvement system and no other family members were punished except the guilty person.

The edict made a great impact on the Hittite history, putting an end to royal murders. This is a part of cultural heritage of human civilization. When the legal spirit of this edict was kept in the process of royal transition, peace and safety were ensued in the nation. Otherwise, human casualties and confusion followed due to rapid changes of monarchies. The principle of the edict can be seen in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The Davidic covenant in southern Judah followed something like Telipinu edict, leaving peaceful succession of kings with the elder son or other sons in general, preventing abnormal involvement from outside or other special situations. Successive military coups and sudden usurpation of kingship in northern Israel brought much bloodshed and national confusion, causing Assyrian exile and national downfall with slavery of the people in the end.

Keywords

Hittite

Telipinu Edict

Southern Judah

Northern Israel

Royal succession

- 투고일: 2012년 1월 1일
- 심사일: 2012년 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2년 2월 2일

www.kci.go.kr